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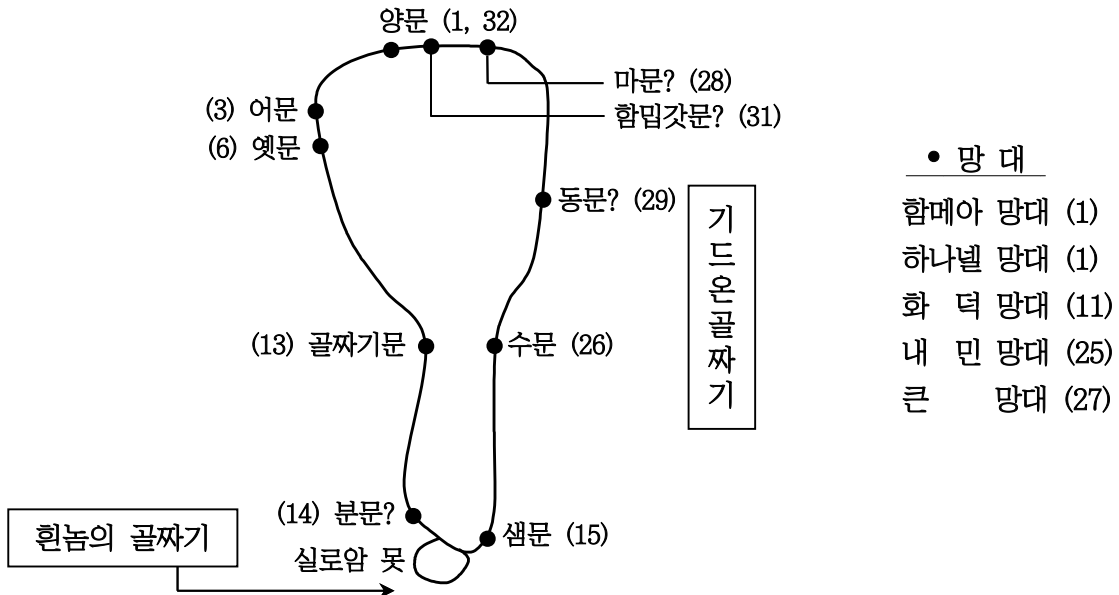
들어가는 이야기

빅토르 위고 「빌키에를 찾아와서」

아름답고 조용한 지평선에 가슴 조이며 지금 나는 강가에 앉아
 내 가슴 속의 깊은 진실 또한 저 잔디 속에 피어난 꽃을 쳐다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잠자는 저 어둠의 석상을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또한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스스로의 왜소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 모두 믿어야 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나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또한 친절하심을 깨닫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하시는 바를 아시며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포기 등심초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습니다.

I. 느헤미야 3장 : 성의 재건

1. 10개의 성문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
 (느헤미야 밤 순례대로)



2. 구체적 묘사

-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 3, 6, 13, 14, 15절)
- 건축하여 (build) 5회 (1-3절)
- 중수하여 (repair) 38회 (4-32절)

3. 책망과 칭찬

- 칭찬 (작은 헌신까지)
 - 11절 한 부분을 중수한 말기야와 핫습
19, 20, 21, 24, 27, 30절
 - 13절 하늘과 사모이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움
+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
 - 14절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단독으로 중수
 - 20절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한 바룩
- 책망
 - 5절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 : 2:16, 5:7, 6:17, 7:5, 13:17과 다른 용어
자칭 높은자들 / 잘난자들

II. 하나됨 unity in diversity

1.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분량대로

- 23절 자기집 가까운 부분
- 23절 자기집 맞은 편
- 28, 29절 자기집과 마주대한 부분
- 30절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
- 형편 따른 분량의 대소
- 대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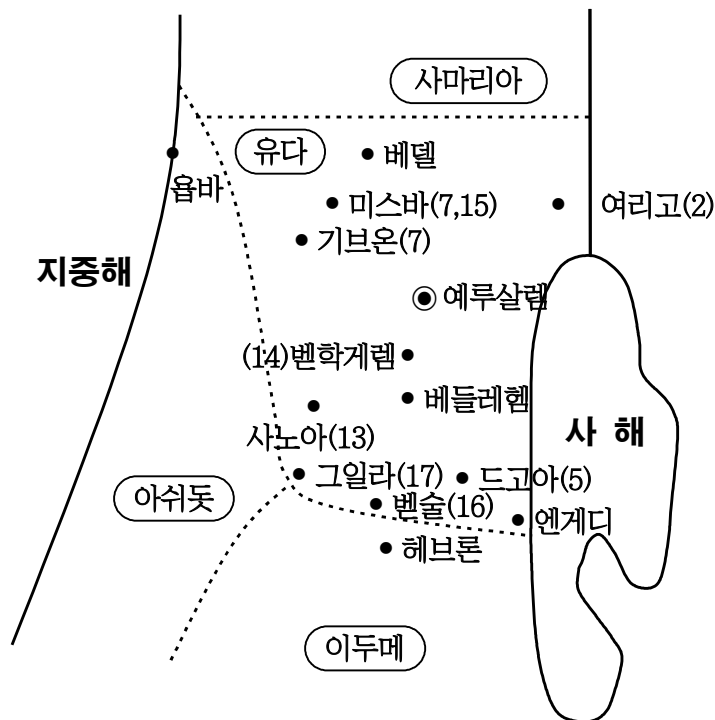
2. 서로 간의 연결

- 그 다음은 : next to him 19회
beyond him 2회
beside him 1회

3. 다양한 직종

제사장 (1), 통치자 (12, 16, 17), 금색장이 (8, 31), 향품장사 (8)
성전일꾼 (26), 상인 (32), 문지기 (29)

4. 다양한 지역



III. 주제 :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선(tob)을 세움

1. 2:18의 성육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Let us rise up and build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tob

3: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rise up build re-tob

2. 하나님께 악 (rà)

창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tob)

예: 헨리뉴웬

의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경쟁적인 사회는 현대인에게 더욱 의로움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의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로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불만이며, 자살의 주요 원인이요, 알콜과 마약복용, 다양한 심신의 고통들(두통, 위통, 요통)의 원인이며, 심지어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로움의 뿌리는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흑암 가운데 철저히 혼자만 남는 상황과 같습니다.

3. 재건의 결과

- 성전과 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됨
- 타 백성들과의 구분이 가능해 짐 (5장)
- 언약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짐
순종이 가능해짐

마감하며

- 키에르 케고르의 이상한 도둑 이야기
- 엔도우 슈샤끄의 침묵
- 성경 밖의 성경 이야기, 타쿤 흘람